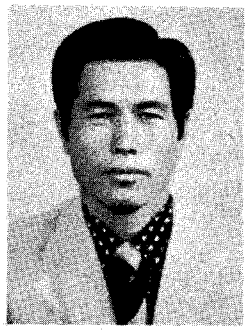
□ 낙농체험아이디어 □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



김 동 봉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낙농인〉

낙농 경력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처지에 양축체험담을 얘기한다는 게 몇번이고 망설여진다.

젖소의 사육중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건강한 송아지를 한 해 한마리씩 안전하게 출산시키는 일과 그 송아지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은 낙농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송아지 기르기에 있어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 등의 질병없이 잘 키워서 암놈이면 1년 안에 출산하는 큰소가 되고, 숫놈이면 1년 남짓해서 5~6백kg 정도 커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 뿐만이 아닌 여러 낙농인의 바램일 것이다.

필자는 낙농 선배나 혹은 축산지도 책자 등에서 지도하는 사양관리 지침을 잘 지키기도 했겠지만 여러 해동안 육성중의 송아지를 아직 한 마리도 잃어본 일도 없고 질병으로 고생해본 일도 별로 없다. 그것은 별다른 처방은 아니지만 다음에 말하는 일을 꼭 실천하고 있는 덕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송아지를 낳으면 누구나 3~4일간은 초유를 먹이는 것이 상식이다. 초유를 먹이면 항병력도 커지고 기타 여러가지 잇점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초유 먹이기를 대수롭잖게 얘기하면서 2~3일 먹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초유를 2주일 가량 먹이고 있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 4~5일간 비유하는 우유 양이 소에 따라 다소 차이도 있고 착유방법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보통 50~80kg 정도가 나온다.

이 양은 송아지에게 3~4일간 뿐만 아니라 열흘 정도를 더 먹일 수 있는 양이 되는데, 남은 양은 가공공장에 납유를 하면 되겠지만 그 질로 보아 너무 아깝다. 날씨가 차가운 겨울철이면 그냥 적당한 용기에 담아 두었다가 먹이면 되지만 그렇질 못한 다른 계절에는 아까운 우유가 산패하여 버리게 되는 실정도 허다하다. 냉각기가 빌 때는 그곳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켜보기도 하지만 넣었다 꺼내었다 하기도 귀찮고 하여 헌 냉장고 하나를 구입해서 이용한다.

근간에는 절전형 신형 냉장고가 많이 보급되는 관계로 종전에 나온 구형 헌 냉장고는 성능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도 2~3만원에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전기료가 조금 먹힌다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불과 2주일 가량 쓰면 되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정도도 아니고 굳이 값비싼 새 냉장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냉장고를 구하면 냉장고 내부의 구질한 선반들은 정리하고 넣기 알맞은 6~10ℓ 들이 플라스틱통을 몇개 구하여 먼저 짠 우유와 나중 짠 우유를 표시하여 저장하였다가 먼저 짠 우유부터 차례로 먹여주면 된다.

어떤 분은 송아지를 빨리 키우고 싶어 잘 먹는다고 하루에 3~4차례로 6~7kg씩 급여하는 분들도 있으나 여러 문헌을 참고해 보니 1일 2회에 4k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여 아침 저녁 각 한되(2kg)가량씩 송아지가 먹기 알맞도록 따뜻하게 덥혀서 먹여준다. 이 저장된 우유를 다 먹인후 일반 어미젖을 계속 먹이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지만, 대용유를 먹일 계획이면 마지막 1~2일 전날부터 대용유를 물과 1대 6의 비율로 희석한 것과 섞어 점차로 늘려 먹여나가면 사료 변경으로 오는 소화불량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때쯤 소 1위 내용물 추출제 1봉(100g)을 3~4회로 나누어 우유에 섞어 먹여보니 송아지가 자라는 동안 소화기관에서 오는 질병도 줄일 수 있었고 조기 이유에 큰 도움이 되는듯 했다.

(이하 27페이지에 계속)

kg, 칼리 70kg정도를 기비(基肥)로 주고 그 다음부터 초지를 정상으로 관리 이용할 때에는 *ha* 당 질소 150~200kg, 칼리 150~200kg을 연간 2~3회 나누어서 추비로 주는 것이 좋다.

(4) 관리

스므스 부로움그라스 초지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목초 자체의 수확과 관계되는 재생(再生)의 상호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화본과 목초 중에서도 스므스 부로움그라스와 티머시 목초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좀 까다로운 목초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로움그라스는 단파(単播)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콩과인 알팔파와 혼파되고 있으므로 알팔파의 관리기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혼파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방목을 하든가 자주 수확하면 알팔파의 주수는 감소되고 부로움그라스는 증가되나 더 자주 이용하게되면 두 초종이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봄철에 스므스 부로움그라스가 일찍 나온다고 해서 방목이나 수확을 너무 떨어지게 될경우에는 부로움그라스에게는 재생이 어려울 정도로 주게 된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초가 자라기 시작하여 줄기 신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주된 줄기에는 생장점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생될 새눈이 수확에 의하여 절단이 되며 밑통에는 새싹이 아직 재생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생에 필요한 저장양분은 이 시기에는 아주 낮아 벤 다음의 재생은 빈약하고 느린 것이다. 따라서 부로움그라스는 봄 일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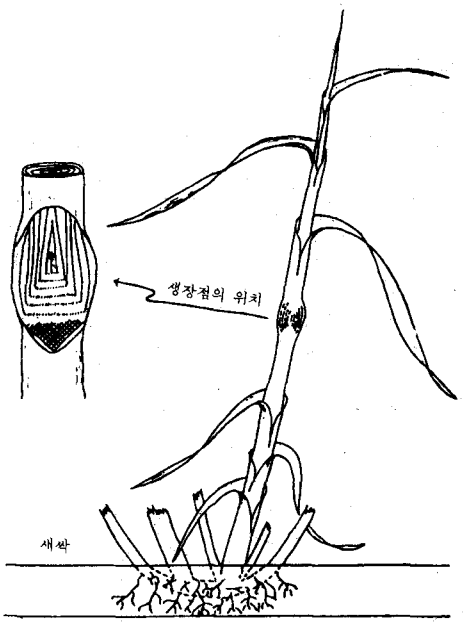


그림 2. 스므스 부로움그라스의 줄기 신장과 생장점에 위치

그리고 줄기의 신장기를 피하고 수확하는 것이 관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라면 5월 초순, 6월말~7월초의 장마전, 그리고 8월 하순의 3회에 걸쳐서 방목 또는 건초로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관리 이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렇지만 만일에 가을에 생육이 좋다면 10월중~하순에 마지막으로 월동을 고려해서 그루터기를 10~15cm정도 남겨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하 33페이지에서 계속)

생후 10일경부터 송아지 사료를 우유에 약간씩 타서 사료 맛들이기 훈련을 시키고, 20일 경에는 양도 늘려주면서 마른 사료를 스스로 먹게하였으며, 30일경에는 우유를 하루 한 끼로 줄이면 농후사료를 1~2kg의 송아지사료를 거뜬히 먹으므로 45일이면 과감히 이유를 시켰으며, 이유 시킨 후 1주일까지는 1마리 독우방에서 계속 기른(배꼽빨기 방제 때문에) 다음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르기 시작한다. 분유떼기 가까운 시기부터 마른 풀 등의 조사료를 주되 생풀이나 물끼 많은 사료는 주지 않는다.

송아지가 과식으로 인한 소화장해가 오지 않으면 6개월까지는 농후사료 및 조사료를 자유 채식토록 하며, 그 후는 가급적 조사료를 많이 먹도록 유도하여 생후 1년 남짓한 시기에 350kg체중을 만들어 교배시키고, 2년만에 출산하도록 사양 관리한다.